

석가탄신일 맞아 당진 '사찰 문화유산' 주목

도선국사 창건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등 보유 현존 유일 문중 사찰 신암사, 보물 지정 금동여래좌상 소장

불기 2568년 석가탄신일을 맞아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사찰들이 주목받고 있다.

당진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3개소(면천 영탑사·고대 영랑사·석문 보덕사) 전통 사찰과 함께 안국사지·신암사·성당사 등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이 있다.

면천면 성하리 상왕산에 위치한 영탑사는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창건했으며 고려 중기에 보조국사 지눌이 5층 석탑을 세우고 영탑사라 했다고 전해진다. 영탑사는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보물)·약사여래상·범종·칠층석탑(이상 충남도 지정) 등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올해 영탑사에서는 보물인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의 보호각 건립과 함께 전통 산사 활용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대면 진관리 영과산에 자리하고 있는 영랑사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크게

중수하면서 사찰의 면모가 갖추어진 사찰이다. 영랑사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인근에 있는 삼선산수목원과 연계해 하루 일정으로 방문하기에 좋다.

송악읍 가교리에는 고려 후기 능성 구 씨 4대 손인 구씨가 창건한 신암사는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문중 사찰이다. 보물로 지정된 금동여래좌상을 소장하고 있으며 올해 보존처리를 마치면 불상의 문화재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석문면 삼화리에 있는 보덕사는 절벽을 타고 오르며 지어진 절로 1676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보덕사에서는 매년 호수음악회가 개최되어 당진시민은 물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이 외에도 보물로 지정된 석탑과 석조여래삼존입상 및 매향암각 등을 볼 수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사찰들이 불기 2568년 석가탄신일을 맞아 주목받고 있다. 당진 안국사지.

당진시

정미면 안국사지와 충남도 문화재 제석전도를 소장하고 있는 성당사도 소중한 사찰 문화유산으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

이지 않고 있다. 이중우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석가탄신일을 맞아 당진에 있는 전통 사찰을 방

문해 마음의 평온함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선 기자 hspark@skyedaily.com

대전시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립니다”

이달 '일제정리기간' 정해... 1만9882건 대상 8억611만 원 환급 예정

대전광역시가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찾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구청별로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정리하는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9882건으로 모두 8억

611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감액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화신청은 △해당 자치구 전화 △유타스 지방세업 ARS 납부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서 기자 jis@skyedaily.com



대전광역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전시



윤병태 나주시장과 관계자들이 뉴질랜드 첫 수출길에 오르는 '새청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뉴질랜드로 날아간 나주쌀 '새청무' 인기몰이

4월 중순 현지 마켓에 진열 1주 만에 600포 판매... 2차분 21t 이달 중 추가 선적

전라남도 나주시는 나주쌀 '새청무'가 뉴질랜드에 2차분 21t을 이달 중 추가 수출한다고 13일 밝혔다.

나주 영산강 들녘에서 맛있게 자란 프리미엄 브랜드쌀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2월 뉴질랜드 첫 수출 이후 4월 중순부터 현지 마켓에 처음 선보인 '새청무'는 상품 진열 1주일 만에 600포(12t)가 판매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새청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쌀이 주류를 이루는 뉴질랜드 쌀시장에서 좋은 밥맛과 쫄득한 식감으로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프리미엄 브랜드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이다.

나주시는 새청무의 현지 인기에 힘입어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선정된 '왕건이 탐낸 쌀'과 '으뜸쌀'도 수출길에 올릴 계획이다.

특히 나주시는 19일부터 5박7일간 뉴질랜드 호주를 방문해 현지 수입업체와 '나주쌀' 1000t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9월에는 글로벌 브랜드쌀 육성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Fine Food Australia2024) 참가 지원과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 등 다각적인 쌀 수출지원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맛과 영양이 겸비된 나주쌀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쌀 수출 확대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2월 뉴질랜드에 총 140t의 새청무를 7회에 걸쳐 수출하기로 현지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배정빈 기자 bj2@sky edaily.com

예산지역서 야생 방사한 황새 전국서 부화돼 총55마리 탄생

번식쌍 모니터링 결과... 작년보다 12마리 많아

충청남도 예산군이 2024년 황새의 전국 번식쌍 모니터링 결과 전국적으로 총 22쌍이 짝짓기와 산란을 하고 그중 16쌍이 부화에 성공해 총 55마리의 아기 황새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2024년 황새 번식 현황으로 예산군에서 총 35마리가 태어났고 △서산시 5마리 △고창군 4마리 △태안군 2마리 △아산시 3마리 △보령시 2마리 △기타 지역 4마리가 각각 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태어난 황새는 작년 43마리보다 12마리 많은 55마리로 야생으로 돌려보낸 황새들의 개체수를 포함하면 200여 마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황새공원 연구팀은 “송전탑을 이용하는 황새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한국전력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4월 지역 내 송전탑 및 건물 옥상 주탑에 동지를 튼 2곳을 해제한 바 있고 해제 사유는 근간 간 번식에 따른 유전적 변형을 예방하고 사육 안전을 위해 알을 수거하는 등 황새의 건강한 개체수 증식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새는 천연기념물로 황새 부부는 연 1회 산란을 한다. 산란 시 평균 4.3개의 알을 낳아 평균 3.5마리를 키우고 알을 품고 새끼들을 키우는 120여 일 동안 암수가 함께 협력해 공동육아를 한다.

이진서 기자 jis@skyedaily.com



충청남도 예산서 야생 방사한 황새가 전국서 55마리새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

나주,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등 철거지원 대상 확대

전라남도 나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확대를 위해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비주택(창고·축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복잡했던 신청기준·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읍면동 20곳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슬레이트 주택·비주택 위치·면적·지붕·벽체 등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처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이 안된 경우 모든 상속 관계자의 동의를 있어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철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모든 상속 관계자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속자 중 대표자 동의와 공시송달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개정기로 하고 시청 누리집에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비주택 469동에 대한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가구 중 주택은 철거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비주택은 200㎡까지 전액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준다.

배정빈 기자 bj2@sky edaily.com



충청남도 보령시가 문화의전당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식 및 동아리 축제를 11일 개최했다. 보령시

보령시 '청소년의 달' 맞아 기념식·동아리 축제 개최

충청남도 보령시가 11일 문화의전당에서 김동일 시장·황정민 세원아청문화육성회 회장·청소년 및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달 기념식 및 동아리 축제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원아청문화육성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취미 활동을 장려하고 자아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에 정진한 모범청소년 17명과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및 사회인턴십 구축에 힘쓴 청소년 육성 유공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동아리축제에서는 대천고 밴드 '까까머리'와 대전여중 댄스팀 '블랙스' 등 12개 팀이 참여해 다채롭고 풍성하게 축제를 이끌어 나갔다.

김 시장은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시에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서 기자 jis@skyedaily.com